

中共의 海上油田開發동향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최 근 2개의 油田발견으로 中共沿岸에서 상업성 있는 석유를 캐낼 전망이 높아졌다. 그러나 中共의 남쪽지역인 珠江삼각주에서 유전개발에 성공한 것은 中共당국에게는 행운과 동시에 난처한 점까지 안겨주게 될지도 모른다.

비록 발견된 유전이, 남쪽 통킹灣에서 북동쪽 渤海灣까지 이어지는 中共의 대륙붕을 탐사하고 있는 西方石油會社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것중 최대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새 油田들이 막대한 양의 개발 가능한 석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더우기 珠江 삼각주지역은 가장 유망한 연안탐사 지역중 하나라고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유전발견으로 中共近海에는 거대한 유전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견해를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유전들은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 『이 모든 것이 中共연안탐사에는 매우 좋은 조짐』이라고 어느 美國회사 중역이 말했다.

보다 값싼 開發費用

개발비용이 덜 드는 보다 소규모의 상업성 있는 유전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새로운 연근해구역 개발을 위한 협상시에 中共이 좋은 계약조건을 베풀기를 바라는 西方석유사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초 10개국 23개 회사들은 中共연안에서 두번째 탐사를 벌이기 위

한 입찰서를 제출했다. 대부분이 2년전 中共과 처음 계약을 맺고 탐사활동중에 있는 석유회사들은 海南島 근해, 珠江 삼각주지역, 黃海 등 3개지역의 여러 구역에 대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中共당국과의 진지한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전문가들은 석유회사들이 소규모유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여러 利益들에 어려운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그점이 협상의 쫓점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에 있는 國립美·中共무역위원회 의 中國에너지전문가인 데이비드·데니氏가 말했다. 『그것은 바로 中共당국이 순조롭게 출발하고 유전개발비용이 보다 경제적이 되도록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가장 최근의 해상시추결과는 홍콩부근 해역을 탐사하고 있는 두 그룹에 의해 발표되었다. 두 油井 모두 이미 中共의 다른 어느 해상유정에서보다도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상당히 큰 매장량

최근 발견된 두 곳 중에 첫번째 것은 필립스 피트롤리엄社 및 셸오일社에 의해 지난 9월 24일 발표되었다. 필립스社는 그전에 발견된 유정의 평가를 위해 시추했던 同그룹의 유정에서 하루 14,755 배럴을 네군데의 다른 深度로 부터 생산해냈다. 이러한 생산량은 금년초 원래의 珠江삼각주油井에서 산출되는 하루에 합계 6,840배럴과 비교가 된다.

그런 후 10월 1일 텍사코社, 세브론社 및 이탈리아의 아지프社로 이루어진 콘소시움은 그들의 油井에서 하루 99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와 함께 몇 군데 지대로부터 하루 13,000배럴 이상을 생산했다고 발표하였다. 금년초 같은 광구에 있는 다른 지질구조의 유정에서는 두개의 深度로 부터 하루 2,589배럴을 생산했다.

뉴욕에 있는 석유산업조사회의 부회장이인 데이빗·지니몬氏는 中共에서 발견된 규모의 油井은 세계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교하여 말하기를 中東에서 하루 10,000~20,000배럴씩을 생산하는 유정들이 발견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관계된 회사들은 中共에서의 유전발견규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유정들을 추가로 더 시추해 봐야 되며, 가장 최근에 발견된 유정들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술적, 경제적 검토가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유전개발에 있어 매우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생산가능한 매장량과 전반적인 경제성을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필립스社의 한 임원은 말했다.

그러나 그 임원은 中共연안에서 발견된 유전들이 「상당히 적은」 규모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석유업체가 지금까지 시추해 왔던 90여개의 유정들로부터 증명돼 온 사실』이라고 그는 말했다.

세브론社의 탐사·생산담당이사인 로렌스·펄크하우저氏는 그의 그룹의 유정에서의 산출량 및 복합적 지대에 희망을 걸고 있으나, 발견된 유정이 개발가치가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中共연안에서 우리가 궁급히 여기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발견된 유정들의 장기생산능력이 어떨지, 다시 말해 처음과 같은 생산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펄크하우저氏는 또한 中共연안지역에는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평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유전탐사의 결과들을 보면, 기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데 뚜렷한 경제성 있는 유전들을 발견치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광범한 弘報

비록 中共당국이 珠江삼각주의 油井발견을 널리 홍보해 왔지만, 국립 美·中共무역위원회의 데니氏는 두개의 유정발견은 中共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 소규모이고 너무 늦게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中共과의 협상을 위해 석유회사들이 제출하는 제안마감일자에 곧 뒤이어, 그는 유정발견의 영향은 감소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덧붙이기를 1차시추계약을 맺었으나, 별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 몇몇 회사들은 보다 유망한 결과를 얻은 다른 장소에서 시추하는 제2차 계약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약 30여 석유회사들은 海南島 남쪽에 있는 잉게海, 珠江삼각주 및 黃海 등 제2차 시추대상 鑛區에 대한 지진탐사자료를 지난 1월 中共당국을 통해 사들였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은 참가제안의 제출을 하지 않았다.

中共이 제2차시추광구를 제의했을 때 고위관리들은 보다 좋은 계약조건을 외국회사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 中共당국은 이것은 소규모유전 발견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데니氏는 석유회사들이 훈련비 및 기술이전비용 등을 자신들이 부담키로 되어 있는 계약조건들을 中共당국이 완화해 주기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추가 비용들은 보다 적은 규모의 비싼 비용이 드는 유전개발을 담당하는 회사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그는 말했다.

이 새로운 협상들은 다른 분야의 中共 석유개발에 외국회사들의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초 아틀랜틱 리치필드社 및 산타페 미네랄즈 아시아社가 中共과 海南島 부근 해상에서 天然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른 회사들은 아르코社의 계약체결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전에는 석유회사들이 별 개발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생각했던, 발견된 追加가스田에 대해 中共당국이 적극 개발코자 하는 의도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 1985. 10. 17〉